

OECD Journal on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 2005 Report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Volume 7 Issue 1**

Summary in Korean

OECD 개발 의제

**2005 년도 기술 협력 보고서: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노력 및 정책 현황  
7 권 1 판**

국어 개요

동 보고서에서는 2005 년 OECD 회원국이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했던 중요 난제 사안을 일부 살펴본다. 2010 년에 원조공여국의 원조 규모는 1 조 300 억불의 연간 목표치를 이루게 될 것인가? 원조는 어느 용도에 쓰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선진국 전문인을 급여 지불하여 개발국에 파견하는 식의 대개도국 기술협력 유형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세계 빈곤인구가 생활 증진의 혜택을 보도록 성장 촉진 장려에 충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가? 2005 년도 학교의 성평등목표 달성에 공동 실패한 현 시점에서 어떤 결과 도출이 가능한가?

원조공여국의 원조 규모가 2010 년도 합의상의 목표치에 이르려면 2004-2010 년 사이 60%의 급증가를 보아야 한다. 이는 OECD 국가 재정이 이미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조 규모가 연평균 8% 이상으로나 확대되어야 함을 뜻한다. 단기에 뚜렷한 ODA 공여 '불'이 예상되나 이 중의 상당분은 소수국의 채무 취소에 기인한 바 대다수 개도국 경우에 재원 이전은 보장되지 않을 상황이다.

**2005 년도에 개발 쟁점이 특별 사안으로 대두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04 년 12 월 26 일 인도양 추나미의 파괴 참상을 목격한 세계는 잇따른 각국 정부뿐이 아닌 세계 각지의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기부금 쇄도와 함께 2005 년도를 시작했다. 지난 7 월 니제르의 식량 위기를 통해 사전 예측이 훨씬 수월한 인류 긴급 구조상황에서조차 국제 체제의 취약성이 여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카리브해, 멕시코만의 극심한 강태풍철, 캐시미어 지역의 지진 참상, 남아프리카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실증 사례 확대 등이 시사하듯 인류 원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5 월 OECD 각료급이사회에서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OECD 국의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밀레니엄선언 및 몬테레이협약을 재차 상기시킨 OECD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7 월 Gleneagles G8 정상회담

및 9월 유엔총회 정상회의에서는 기후 변화, 안보, 인권에 밀접히 관련된 사안과 더불어 개발 쟁점이 국제 의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기회였다. 이어 홍콩 WTO 회의는 "개발 라운드" 출범에 관한 도하 약속 실행여부에 주의를 집중시키며 2005 년도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분석 작업의 영향**에 필적한 것이었다. 1월 유엔밀레니엄계획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도국별로 어떻게 천년개발목표 (MDGs)를 일반 바램사항에서 현실로 가시화시키는지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잇따라 현 추이를 감안하면 다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대부분의 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강조시켰다. 아울러 빈곤해소전략(PRSs) 같은 현존 도구는 시도된 틀에서 개입 규모를 늘리는 "신속 결과" "quick wins" 등의 기타 조치로 보완하여 보다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에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평화구축위원회 설립 목적의 9월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는 극단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쟁에서 평화로의 과도기에 놓인 국가를 지원하자는 데 공감을 표명했다. 3월 영국기금 운영의 아프리카위원회 또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아프리카 국가와 당해 개발상대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 해소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광범위하게 지적해 주었다. 이 작업은 OECD와 아프리카경제위원회가 처음 공동 실시한 아프리카와 OECD국 간의 상호 검토작업으로 보완되었다. 한편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는 개발 과정에서의 형평성 의미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했다.

2005년에 일부 계획 사항은 실제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 사안인 **다자간섬유협정** 종료와 함께 다수 개도공급국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어 일부 핵심 시장에서 통제가 재발동되어 일시적 제약이 초래되긴 했으나 섬유류 교역 추이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게 된 시기였다. 이런 와중, 심각한 채무를 진 빈곤국 대상의 HIPC 조치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낸 소수 빈곤국에 한해 이들이 국제통화기금, 국제개발협회,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진 다자간 부채를 취소하자는 데 의견이 합치됐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인구수를 누리는 나이지리아는 상당 규모의 빚을 삭감받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장에 상세히 후술한 바 원조의 규모 및 효과성에 관한 중대 결정 사안도 일부 도출되었다.

2004년 눈부신 성장을 기록한 개도국들은 이어 1인당 소득 증가율에서도 OECD보다 우월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바 특히 아프리카 1인당 소득이 비로소 (여전히 극소폭이긴 하나) 뚜렷한 증가세에 진입했다는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 가버넌스 지표에서 플러스 증가율을 고수한 개도국도 다수였다. 유가의 급상승으로 산유 수출국은 뜻밖의 이익을 획득했던 반면 여타 국가의 성장은 지체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개도국이 이로써 받게 된 부정적 효과는 동 보고 작성 시에는 예상보다 덜 심했다는 결론이다.

요컨대 2005년도는 세계의 빈곤인구 여건을 MDGs 목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저한 변화 확보가 절대 필수임을 상기시켜 준 해였다. 이런 와중, 세계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빈곤과 불평등의 상황 치유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보다 과단성 있는 합동 사업 구축이 모색되기도 한 해였다.

OECD DAC 사무국은 2004-2010년 사이 DAC 회원국의 순 ODA 지불액이 (2004년 미달러로) 795억불에서 1조 281억불로 증가하여 거의 500억불의 증액을 이룰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는 DAC 추산을 토대로 1960년 개발원조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의 확장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고무적인 추이에도 2006년에 몬테레이 서약상의 원조 규모가 실제로 제공될 것인지, 그리고 단기 ODA "붐"에도

2010 년도의 원조 목표치에 이르려면 원조공여국들은 여타 유형의 원조 제공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원조 예산의 확장이 예정된 현 시점에서 원조 집행의 효과성 제고는 가능한가?**  
더 큰 협력에 기초한 합동 사업이 개발 수단으로 대두될 경우 과거의 원조 집행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실제 지난 몇 년간 다수 원조공여국이 각종 조치를 도입하여 신규의 원조 계획 및 제공 방식을 구비시켰다. 특히 OECD DAC가 공동주최한 2005년 3월 파리 고위급포럼 및 잇따라 채택된 선언문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 개혁 및 세계빈곤퇴치 사안에 있어 전례 없는 합의와 결의 수준을 보였다는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이는 지속가능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원조국 간의,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적 노력에 강력한 촉매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

일국의 **능력 배양**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이면서도 난해한 사안의 하나다. 이 때의 능력이란 “유능한 국가”나 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인 개발 환경 조성에 있어서의 공공기관 능력, 혹은 민간부문, 시민사회, 개개 차원의 능력 등을 폭넓게 망라하는데 이 모든 능력의 실제 개발이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실마리가 되는 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좀처럼 신속히 얻어지지 않는다. 한편 기술 협력은 능력 배양과 전혀 동일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술 협력 부문에 능력 배양에 관한 DAC, UNDP 및 여타 기관의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능력 배양에 기여하는 지역 기관을 지원하려면 어떤 고등교육 과정을 구상할 수 있는지 등은 꼭 살펴보아야 할 중요 사안에 속한다. 지금까지 조직 자체가 속해 있는 총체적 제도 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개개가 속해 있는 조직에 관련된 성과 제고 측면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개개의 근로능력 갱신에만 노력을 치중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했다. 이는 숙련 노동자의 욕구 불만을 조장하고 조직 차체에는 최소의 결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요 기관의 갱신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장기 접근방법 수립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야 개인의 근로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고려되어질 듯하다.

원조공여국의 단기 사업 목표가 장기의 점증적 발전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현실이 시사하듯 능력 개발 차원에서 얻은 교훈은 지속적이며 꾸준한 능력 개발 접근법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년에 걸친 원조 규모 확장은 예측이 보다 수월한 원조 흐름으로 뒷받침되어 능력 개발 노력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시한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원조 확장은 특히 아프리카나 일반 소국가에서 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지 않은지 등에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한편 원조 확장의 도전에 따른 주요 가버넌스의 위험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지금 우리는 MDGs와 2015년도의 회합 경로를 향한 중대 시기에 들어섰다. 학교 참여의 성평등 목표에 실패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의 성별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숙고가 필요함을 인지한다.

“성별 주류”에 기초한 전략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 및 단체 차원에서는 자체의 실패를 일부 인정하고 나름대로 “게임 수준을 올리는” 방법 발굴에 힘쓰자는 등 진지한 결의를 보였다. 원조 제공의 접근법 재구상, 실패사례 공유, 서로의 경험을 통한 지식 흡수, 공동작업의 단호한 수행 등이 모든 과정에 엄청난 정력과 혁신을 힘껏 소용해야 할 상황이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